



사진 1



사진 2



사진 3

## 석등[石燈] - 고복형(鼓腹形) 석등 ③

고복형 석등은 간주석이 북(鼓) 또는 장고(長鼓) 모양을 한 석등을 말한다. 혹자는 이 모습이 마치 수미산(須彌山) 위에 앉아 설법하는 부처의 대좌(臺座) 모습을 띤 것으로 보아 수미산형 석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매우 화려한 문양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불교적 예술과 사상을 접목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불교에서는 지상과 천상 사이에 33천(天)을 두고 이 33천 위에 수미산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석등의 불집, 즉 화사(火舍)를 수미산의 상징으로 보면, 수미산과 지상 사이의 공간은 당연히 기둥, 즉 간주(竿柱)가 받치고 있는 셈이 된다.

지상에서 수미산을 받치고 있는 것은 ) 형태의 쌍내곡(雙內谷)을 이루고 있는 기둥인데, 불경에서는 이 안으로 굽어진 내곡 부분의 주변에서 태양과 달이 운행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석등이 고복형의 간주석을 갖는 석등이다. 이 간주의 상하에 놓여있는 연화대(蓮花臺)는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그리고 간주의 중간에 윤부(輪部)가 배치되어 있는데 윤(輪)의 앞뒤와 좌우의 사면에는 각각 사엽문(四葉文)을 양각하여 태양과 달의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고복형 석등에는 불교의 세계관 및 우주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사진1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求禮 華嚴寺 覺皇殿 앞 石燈]// 통일신라// 높이 636cm// 국보 12호//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사진2 남원 실상사 석등[南原 實相寺 石燈]// 통일신라 // 높이 500cm// 보물 35호//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실상사// 문화재청 자료

사진3 임실 진구사지 석등[任實 珍丘寺址 石燈]// 통일신라// 높이 518cm// 보물 267호//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734// 문화재청 자료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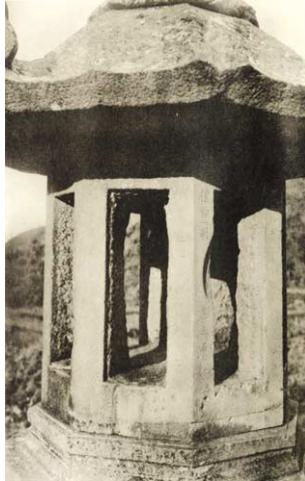


사진 5



사진 6



사진 7

대표적인 고복형 석등으로는 전남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사진1**), 전북 남원의 지리산 실상사 석등(보물 제35호, **사진2**), 전북 임실의 진구사지 석등(보물 제267호, **사진3**), 전남 담양의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 **사진4, 5**), 경남 합천의 청량사 석등(보물 제253호, **사진6**), 강원 양양의 선림원지 석등(보물 445호, **사진7**) 등을 들 수 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우리나라 석등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통일신라 헌안왕 4년(860)에서 경문왕 13년(873) 사이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의 크기와 대비되어 그 거대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둔중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활짝 핀 연꽃조각의 우아함과 화사석·지붕돌 등이 보여주는 웅건한 조각미는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적 요소이다. 실용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원 실상사 석등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석등 앞에 불을 밝힐 때 쓰도록 별도의 돌사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한편, 제작연대가 확실한 것으로는 개선사지 석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화사(火舍)의 창 사이 공간에 통일신라 진성여왕 5년(891)에 만들었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석등 가운데 글씨를 새긴 유일한 예로, 비슷한 시대의 다른 유물의 연대와 특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합천의 청량사 석등은 화사석(火舍石) 네 면에 창을 내고 옆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도드라지게 새겼으며, 강원 양양의 선림원지 석등은 기둥의 양끝에 구름무늬 띠를 두르고 훌쭉한 가운데에는 꽃송이를 조각한 마디를 둔 후, 이 마디 위아래로 대칭되는 연꽃조각의 띠를 둘러 다른 석등과는 달리 모두 3개의 마디를 이루게 하였다. KEA

사진 및 자료 / 문화재청, 조선총독부(조선고적도보)4,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중앙일보사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4 담양 개선사지 석등[潭陽 開仙寺址 石燈]// 통일신라 891년// 높이 350cm// 보물 111호//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593-2//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
- 사진5 담양 개선사지 석등 화사석(火舍石) 명문(銘文)// 《조선고적도보》4(1916년, 조선총독부장판)
- 사진6 합천 청량사 석등[陝川 淸涼寺 石燈]// 통일신라// 높이 340cm// 보물 253호//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3 청량사// 문화재청 자료
- 사진7 양양 선림원지 석등[襄陽 禪林院址 石燈]// 통일신라// 높이 292cm// 보물 445호//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424// 정영호 감수,〈석등 부도 비〉한국의 미 15(1990년, 중앙일보사)